

달러 기반 코인 99.7% 장악… 非기축통화 경쟁력 ‘의문’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압박
달러 코인 천하 속 역할 ‘제한적’
엔화 등 기축통화도 경쟁력 낮아
원화 코인 과도한 기대감 ‘경계’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법제화가 압박한 가운데 ‘원화 코인’에 대한 관련 업계와 투자자의 기대감이 과도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장의 절대 다수를 달러 기반 코인이 점유 중인 만큼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 기반 코인은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고 그 역할도 제한적이란 지적이다.

10일 가상자산 시황정보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시가총액은 약 3100억달러다. 전년 동월의 1740억달러와 비교해 약 78% 성장했다. 특히 같은 기간 스테이블코인 시총 1위·2위에 해당하는테더(USDT)와 USDC의 공급은 약 700억달러 늘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을 기존 법정화폐로 고정한 가상자산이다. 주로 달러·유로·엔화 등 기축통화를 기준으로 발행되며, 가상자산 시장 내에서 각종 규제



가 많은 기존 화폐를 대신해 사용된다. 또한 최근에는 편의성·비용 면에서 주목을 받아 간편결제나 송금을 비롯한 실물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시장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면서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들도 스테이블코인의 법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22년 자금결제법 개정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법제화했고, EU는 2023년 ‘MiCA(암호자산시장법)’를 통해 관련 규율을 마련했다. 미국도 올해 5월 발행요건 등을 규정하는 ‘지니어스 법(GENIUS

Act)’을 통과시켰다.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입법 움직임이 활발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0일 국정감사에서 연말까지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하는 내용을 포함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를 입법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다수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정치권의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움직임에 핀테크 업계와 투자자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가상자산 업계 일각에서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국내의 기대감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

다. 시장 대부분을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차지하는 가운데, 비(非) 기축통화인 원화 기반 코인은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총 3100억달러 규모의 전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달러 기반 코인이 차지하는 금액은 99.7%에 해당하는 3090억 달러다. 유로화 기반 코인은 7억달러(0.2%), 엔화 기반 코인은 1600만달러(0.005%) 유통됐다. 기축통화인 엔화에 기반한 코인의 유통량이 0.01%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기축통화도 아닌 원화에 기반한 코인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긴 어렵다는 것.

스테이블코인은 유통량이 곧 발행사의 이익으로 이어진다. 주요국들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동일 규모의 예금·국채를 담보로 확보하도록 하는데, 해당 국채와 예금의 수익률이 곧 발행사의 수익금으로 이어진다. 기술 개발·인프라 구축·보안 유지 등에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한다면 막대한 유통량 없이는 이익이 발생할 수 없다.

정치권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

행 시간편결제 시장에서 활용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국내의 결제 환경은 은행·카드사에 기반한 실시간 결제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원화 기반 코인이 이를 대체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정치권이 제시하는 다른 사용처인 수출입 대금 지급에서도 기축통화인 달러나 달러 코인 대신 원화 코인이 대신 사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국제 규제 표준을 따라가기 위한 스테이블코인의 법제화는 필요하다면서도, 과도한 기대감이 모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의 유통량이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관련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시장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면서 “달러 기반 코인이 시장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현 상황에서 비 기축통화인 원화에 기반한 코인의 역할이나 용도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BNK·iM·JB금융, 나란히 웃었다… 비은행이 효자

지방금융 3사 3분기 호실적 기록
PF 총당금 감소로 순익 17% 늘어
금리 하락기 새 먹거리 찾기 과제

지방금융 3사(BNK·iM·JB)가 3분기에 호실적을 기록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여파가 잦아들면서 총당금 부담이 감소한 비은행 부문 실적이 성장한 영향이다. 정부의 대출 규제에도 연체율이 완만한 상승세에 있고, 금리 인하 전망도 계속되는 만큼 성장 지속을 위해 ‘새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는 분석이다.

10일 각 금융지주사 공시에 따르면 지방금융 3사의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1조 7804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조 5208억원과 비교해 17.1% 늘었다. 지주사별로는 BNK금융이 지난해보다 9.2% 늘어난 7700억원을 기록했고, iM금융은 작년보다 70.9% 늘어난 431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했다. 같은 기간 J

B금융은 2.8% 증가한 5631억원의 실적을 냈다.

3곳 모두 수익성이 개선됐지만 지난 몇 년간 실적 성장의 바탕이 됐던 은행 계열사의 실적은 주춤했다.

BNK금융의 부산·경남은행은 지난해보다 51억원(0.75%) 감소한 6704억원의 누적 당기순이익을 기록했고, JB금융의 전북·광주은행은 123억원(2.9%) 감소한 412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다만 iM금융의 iM뱅크는 241억원(7%) 성장한 3666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는데, 이는 타 금융지주의 은행 계열사와 달리 적극적인 영업 확대 전략을 지속한 영향이다.

은행 계열사의 성장세가 주춤한 것은 금융권 전체에서 가계·기업대출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서다. 연체율이 오르면 향후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대손충당금 부담이 빠르게 늘어나며, 대출 건전성 여제를 위해 신규 대출 취급이 어

려워진다.

지난 3분기 말 기준 지방금융 소속 5개 은행의 연체율 평균은 0.97%다. 직전 분기말의 0.89%보다 높아졌고, 같은 기간 4대 은행(신한·국민·하나·우리) 평균인 0.34%와 비교하면 뚜렷하게 높다. 지방은행은 시중은행과 비교해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취급이 잦고, 기업대출에서도 중소기업 대출의 비중이 큰 만큼 불경기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연체율도 급등한 것.

은행 계열사의 성장세는 다소 주춤했지만, 비은행 계열사 및 해외 계열사의 수익성은 일제히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부동산 PF 부실의 여파가 다소 잦아들면서 총당금 부담이 빠르게 감소한 영향이다.

BNK금융의비은행계열사(캐피탈·투자증권 등)는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으로 지난해보다 419억원(33.9%) 성장한 1660억원을 기록했고, 같은 기간 JB금

융의 비은행계열사(우리캐피탈·자산운용 등)도 436억원(20.2%) 증가한 2590억원의 실적을 냈다.

지난해 1~3분기 899억원의 손실을 냈던 iM금융의 비은행 계열사 및 해외 계열사(증권·캐피탈·라이프 등)도 올해 3분기까지 65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지난해까지 막대한 총당금을 부담했던 iM증권이 3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한 영향이다.

지방금융의 전체 실적에서 비은행 부문과 비이자이익 비중이 커지는 가운데, 비이자이익을 비롯한 ‘새 먹거리 탐색’은 지방금융의 새로운 과제로 부상했다. 정부가 부동산 대출을 비롯한 가계 대출 억제에 대해 대출 규제를 지속하는 가운데, 완만한 기준금리 인하 기조도 이어지고 있어서다. 기준금리가 하락하면 일부 대출 상품의 금리도 함께 하락하며, 이는 이자이익 감소로 이어진다.

/안승진 기자 asj1231@



마포 푸르지오 센트럴 로열 투시도. /대우건설

대우건설 마포구 중동 모아타운 시공사로 최종 선정

대우건설은 서울 마포구 중동 모아타운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 마포구 중동 일대에 지하 4층에서 지상 최고 35층, 6개동, 총 54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총 공사금액은 1982억원 규모다.

모아타운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말한다. 모아타운 사업은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방식으로 사업요건 및 건축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여건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중동 일대는 2022년 10월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후, 지난 4월 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다. 사업·건축 요건 완화,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행정절차 간소화 등 서울시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우건설은 마포 중동 일원에 ‘마포 푸르지오 센트럴 로열(MAPO PRUGI OCENTRAL ROYAL)’이라는 단지명을 제안했다. 단지명은 모든 인프라를 갖춘 주거 중심지를 뜻하는 ‘센트럴(Central)’과 국왕·왕족을 상징해 고귀하고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담은 ‘로열(Royal)’을 조합해 단지를 마포 중심 입지에 걸맞은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대우건설의 의지를 담았다.

/안상미 기자 smahn1@

캐피탈사, 3분기 순익 호조… 사업 다각화 영향

현대캐머셜 순익 130% 경증
우리금융 30%, NH 23% ▲

주요 캐피탈사가 3분기에 실적 호조세를 나타냈다. 대손충당금 증가로 여전히 영업비용 부담을 안고 있으나, 산업금융, 기업금융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다각화해 수익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금융권 공시에 따르면 현대캐머셜은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30.4% 증가한 715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누적 당기순이익은 171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3% 증가했다. 누적 역대 최대 영업익이다. 누적 기준 영업수익과

영업이익은 7372억원, 113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과 비교해 각각 15.3%, 43.8% 늘어난 수치다.

우리금융캐피탈 역시 3분기 당기순이익 48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29.7% 증가했다. 3분기 누적 순이익은 1150억원으로 전년 대비 0.9% 소폭 하락했지만,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누적 순영업수익은 3350억원으로 전년 대비 7% 증가했다. 특히, 비이자 이익이 1780억원으로 같은 기간 34.8% 증가했다.

NH캐피탈은 전년 동기 대비 23.3% 증가한 874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KB캐피탈 3분기 순이익은 70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넘게 증가하며 회복세를 나타냈다.

주로 자동차 금융 중심의 산업금융과 기업금융 확대가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표적으로 우리금융캐피탈의 경우 자동차 금융 자산 규모가 1년 사이 250억원 확대됐다. 지난해 1~3분기 누적 기준 7조 2270억원이었던 자동차 금융 규모가 올해 3분기 누적 7조 4720억원으로 약 250억원 증가한 것.

우리금융캐피탈 관계자는 “오토론 같은 경우 지난해에는 수입차를 중심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였다면, 3분기는 점유

율 확대보다는 구축된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는 데 집중한 것이 주효했다”고 말했다.

현대캐머셜 또한 자동차를 중심으로 산업금융과 기업금융 수익성이 제고됐다. 3분기 누적 상품자산 규모를 살펴보면, 산업금융이 5조 2421억원, 기업금융이 4조 9512억원으로 집계됐다.

산업금융에서는 중고차 대출 및 할부 자산 규모가 수익을 견인했다. 3분기 신용대출을 포함한 누적 중고차 대출·할부 자산 규모는 1조 6179억원으로 전년(1조 2116억원)과 비교해 약 33.5% 증가했다. 기업금융에서는 같은 기간 투자금융이 9608억원에서 1조 2997억원으로 35.27% 오르며 수익성을 이끌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